

효성, 에너지·전력 인재 직접육성

효성그룹이 에너지·전력 분야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성그룹은 에너지 및 전력 산업 분야의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효성과 수도권고는 특강, 인턴 실습, 채용에 이르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실시하게 된다.

효성 임직원들은 11월부터 수도권고를 찾아 전력산업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특강하고, 졸업반인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인턴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효성은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중공업 부문 기능직 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학교와 산업체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0/21>